

은혜로 갈려온 100년, 섬김으로 갈려갈 100년

# 경산교회 100년사

(1909~2009)

정 주 경 지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교회



*The 100 Years History of  
Gyeong San Presbyterian Church  
1909-2009*



**교회로고 설명**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교회 이미지(로고 아래부터 설명)



1) 밀려가는 바다 물결 모양 : 거대한 바다 물결처럼 강한 힘으로 역사하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



2)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의 검 모양 : 부흥의 역사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 부흥의 역사 중심에 계시는 말씀 하나님



3) 그 위에 비둘기 형상, 불의 형상 : 창조 당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처럼, 교회를 덮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 1909 ~ 2009

Gyeong-San Presbyterian Church







격려사

## 경산교회 10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박해동 장로

“할렐루야”

100년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우리 경산교회가 100년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 놓았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삼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미약한 힘이나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 붙잡고 100주년 모든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고 마지막으로 교회역사 사기편찬을 발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909→2009  
**Gyeong-San**  
 Presbyterian Church

# 100

경산교회가 100년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 놓았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책자를 맡아 수고하신 주필 정주경 목사님, 사기편찬 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장로님 외 정주성 장로님, 설천복 장로님 등 많은 위원들이 수고하므로 100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마무리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위원장 박해동 장로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편찬사



신동욱 장로

「경산교회 100년사」가 빛을 보도록 섭리(攝理)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나라는 망국(亡國)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진(先進)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암울(暗鬱)했던 이 지역에 험벗고 절망의 길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년 동안 지역사회에 빛을 밝히며 오늘의 경산교회를 있게 하시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시련(試鍊)과 도전(挑戰)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리를 사수(死守)해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봉사와 사랑, 그리고 기도와 전도가 이 교회 100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경산교회 100년사」의 출판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아주 귀중한 문헌(文獻)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교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들을 결의하고 추진하면서 옛 정취가 풍기는 고향교회를 찾아오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눈에 삼삼하여 기억이 늘 새롭습니다.

당회록이나 제직회록이 귀중한 자료가 되지만은, 더 많은 고증(考證)



1909→2009  
Gyeong-San  
Presbyterian Church

100

나라는 망국(亡國)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진(先進)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암울(暗鬱)했던 이 지역에 햇빛과 절망의 길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년 동안 지역사회에 빛을 밝히며 오늘의 경산교회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참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김 번 장로님과 함께 개척당시의 직계후손, 또는 외명 중에 계신 사월교회 김원재 장로님, 돌집 예배당을 헌당한 오태환 목사님 외에 여러분을 방문해서 초창기 역사적 고증을 정리하고, 어려운 편찬사 작업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가 인정하는 가나안 농군학교 정주경 목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와서 교회마당에 풀 한포기라도 뽑겠다는 심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하시면서 수고하신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교회 100년사에 기꺼이 축사를 써 주신 이성헌 중경총회장님, 정성구 전 총장님, 이승평 노회장님, 100주년 감사예배 설교자 이원상 원로 목사님, 자문을 주신 초량교회 장봉학 장로님, 고신대학교의 이상규 목사님, 컴퓨터작업을 도우신 김은정 집사, 박수영 선생, 출판을 맡은 서문기획의 남재수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취가 새로운 도전과 창의성을 결심하는 동기가 되어 앞으로 위대한 역사가 더해지기를 바라며, 「경산교회 100년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편찬사에 대신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장로  
경산교회 사기편찬 위원회





축사

## 경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성현 원로목사

먼저 경산교회의 설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구위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평화의 웃음이 있다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신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임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10번이나 지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일제치하의 고통과 6.25전쟁의 아픔도 이겨내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산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음은 경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경산교회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장로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경산교회에 끼친 공헌과 영향을 생각할 때 벅차



1909→2009  
Gyeong-San  
Presbyterian Church

100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산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음은 경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수고로 섬긴 경산교회의 그루터기들이 있었기에 경산교회의 100년의 역사도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산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100년의 세월이 지난 경산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바라는 더욱 더 부흥 발전하여 대구를 대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해마다 자라가기를 축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였다고 칭찬받는 경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  
대구서문교회 원로목사





축사

## 또 다른 100년을 위하여



정성구 목사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신자들의 몸이요 집단이다”(칼빈의 교리문답 1541년 논문 p50)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구원은 항상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칼빈의 에스겔주석 p294) 라고 했습니다. 또 청교도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오웬은(John Owen)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교회는 선포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을 선포할 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청지역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한 경산교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산교회는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100년이면 강산이 열 번이나 변한 셈이지만 경산교회가 변함없이 꾸준히 부흥 발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당의 규모나 평수, 또는 숫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



1909→2009  
Gyeong-San  
Presbyterian Church

100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100년을 향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산교회의 꿈과 비전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으로 택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웃과 세계를 향한 이 시대의 소명과 사명을 자각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하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된 거대한 에너지가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역동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100년을 향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산교회의 꿈과 비전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으로 택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웃과 세계를 향한 이 시대의 소명과 사명을 자각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백년은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백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교회 설립 100주년을 축하드리고 경산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현, 칼빈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장





축사

# 은혜로 지나온 100년 더 큰 은혜로 새로운 도약을



이승평 노회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청 노회에 소속한 경산교회의 설립된 역사가 어언 100주년을 하나님 은혜로 맞이하여 지나온 발자취를 글로 담은 '경산교회 100년사' 출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경산교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교회 설립 이후의 지나간 100년을 돌이켜 본다면 근대사의 어려웠던 격동기요, 일제의 강정으로 나라의 아픔과 교회의 수난, 6. 25와 숭한 시련들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오면서 황무지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가꾸어 왔던 수고가 얼마나 사연 깊어 많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긴 세월 속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온갖 시련의 고통과 만고의 풍상을 겪으면서 피와 땀의 결실을 이룩하고 오늘의 아름답고 미려한 교회당을 세우기까지 되었음은 주의 은혜 크신 사랑임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1909→2009  
Gyeong-San  
Presbyterian Church

100

경산교회 설립 이후의 지나간 100년을 돌이켜 본다면 근대사의 어려웠던 격동기요, 일제의 강정으로 나라의 아픔과 교회의 수난, 6. 25와 슬픈 시련들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오면서 황무지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 목은 땅을 기경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가꾸어 왔던 수고가 얼마나 사연 깊어 많겠습니까?

이제 지나간 100년을 회고와 전망으로 새로운 더 큰 은혜로 도약하여 감으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해 가기를 바라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5-6)

이승평 목사  
경산동부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청노회장





축사

## 경산교회 10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이원상** 원로목사

경산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사기를 출판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909년 교회설립이래 충성되어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앞서가신 성도님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정중히 존경을 표합니다. 100년의 경산교회 역사는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역사가 증명하는 핏박과 환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데 삶을 드린 많은 충성된 성도들에 의해서 엮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산교회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몇 가지 자랑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적인 신앙을 굳게 지켜온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입니다. 많은 역사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처음 받았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한 것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며 목양해 오신 주의 종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한 교회입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 부끄러운 분열의 일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100주년 기념예배에 갔을 때 제가 경산교회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온 성



1909→2009  
Gyeong-San  
Presbyterian Church

100

100년의 경산교회 역사는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역사가 증명하는 핏박과 한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데 삶을 드린 많은 충성된 성도들에 의해서 엮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들의 뜨거운 사랑은 저로 하여금 경산교회는 아름다운 마음의 고향임을 다시 느끼게 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00년 동안 스물두분의 담임목회자들이 평균 4년 반이라는 짧은 목회를 하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흥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들의 사역기간은 평균 23년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낸 교회입니다. 저도 그중 한사람입니다. 참으로 축하를 받기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우리 교회에 지상대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 지역사회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상 목사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설교자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원로목사

현 씨드(Seed) 선교회 국제대표





## 필자의 글



정주경 목사

경산교회 100년사 집필을 마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1999년 1월 31일 부로 23년 동안 사역하던 나의 최종 사역지인 제1가나안농군학교와 가나안교회를 은퇴하여 모태부터 다니던 경산교회로 돌아와 자원하여 경산교회역사자료 수집을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955년에 경산교회 첫 사기편찬위원회 위원으로 5명이 선출되었으나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고 혼자만 남았으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 시점에 그동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 여러 해 걸쳐 「경산교회 100년사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철 (1909~2004. 4)」을 2004년 4월 30일에 완성할 때만 해도 제가 맡을 줄 생각을 못하였으나 2008년 5월 25일에 개최한 당회에서 저에게 정식으로 100년사 집필자로 선정하여 주필이라는 직명을 줄때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이제 외서는 100년사를 읽고 독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역시 두렵기만 합니다. 필자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미숙한 것, 누락된 것이 많이 발견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쉬운 점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사가 일반역사와 달리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의 역사가 예수그리스



1909→2009  
Gyeong-San  
Presbyterian Church

100

교회가 일반역사와 달리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의 역사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화 되어갔는가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혔는지 생각되어지면서 다만 한 가지 사안이라도 정확히 기하고자 나름대로의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화 되어갔는가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혔는지 생각되어지면서 다만 한 가지 사안이라도 정확히 기록하고자 나름대로의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데 필자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졌습니다. 박세봉 담임목사님의 지대한 관심과 일관되게 격려해 주신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부교역자들 특히 박형렬 목사님(당시는 전도사)과 박득숙 여전도사님의 민첩하고 실제적인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100년사 독회시간을 가져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읽고 격려해주신 박해동 장로님 외 여러 시무장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필 중 조언을 아끼지 않은 대구경북기독교역사연구회 회장 이재원 장로님, 경산교회 출신으로 교수인「초량교회 100년사」집필자인 장봉학 장로님, 부산 고신대 역사신학과 교수 이상규 목사님, 「사월교회 100년사」를 집필하신 정원영 원로장로님의 친절한 조언 등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역대 사기편찬위원 김 번 장로님(전 위원장), 신동욱 장로님(현 위원장) 정주성 장로님, 김정수 장로님, 설천복 장로님, 더욱이 사기편찬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장로님의 헌신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경산교회 100년사」를 작성하는데 컴퓨터 봉사를 한 박수영 선생과 「경산교회 100년사」 전체를 컴퓨터로 봉사





1909-2009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100년사

를 아끼지 않은 김은정 집사님, 많은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월요일마다 모여 뜨겁게 100년사 편찬을 위해 기도해주신 한마음 기도회 회장 서정우 목사님 외 회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사실에서 늘 도와준 홈스쿨 시설장 박경미 집사님, 간사 김상호 선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지켜보며 격려해주신 전성문 원로장로님 외 경산교회 모든 성도여러분들 경청노회관내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세심하게 돌보아주며 기도로 격려해준 아내와 문장 및 기타 대조작업을 해준 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100년사가 앞으로 110년사 혹은 200년사를 집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보람을 찾고자합니다. 지금의 심정은 필자 한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이 책을 편찬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하고도 진실 된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초창기 교회개척자 안의와 (Rev. James Edward Adams) 선교사님 및 여러 교역자님 그리고 일제의 모진 핍박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온 앞서간 장로님 제직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이「경산교회 100년사」를 집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사기편찬실에서

정주경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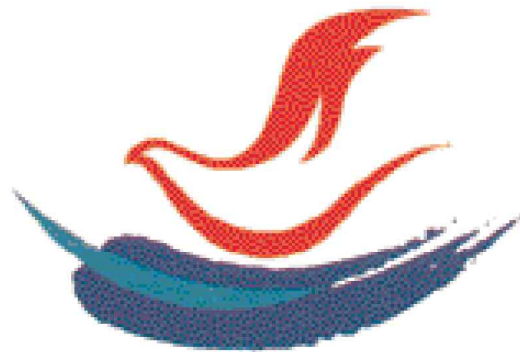
경산교회 100년사 집필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청노회 은퇴목사



동해로 팔러온 100명 섬길수로 팔러갈 100명





문화로 향하는 100명, 살림으로 향하는 100명



# 경산교회 100년사 차례

## Contents

### 제 1 편 서 설

#### 제 1 장 나라의 정세와 기독교의 전래

제1절 나라의 정세 .....	/154
제2절 가톨릭의 전래 .....	/155
제3절 개신교의 전래 .....	/156

#### 제 2 장 경산교회 설립

제1절 경산의 역사 및 현황 .....	/167
제2절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	/168
제3절 경산교회 설립 .....	/171
제4절 설립년월일에 대한 고증 .....	/173

### 제 2 편 교회의 초창기

#### 제 1 장 초창기의 교회

제1절 삼북교회(1909)와 선교사 목회 .....	/176
제2절 계동학교 경영 .....	/177



# Contents

G Y E O N G - S A N P R E S B Y T E R I A N C H U R C H

## 제 2 장 첫 한국인 김병농목사 부임

- 제1절 김병농목사 목회(1915 봄~1916. 3) ..... /179
- 제2절 그 당시의 이모저모 ..... /180

## 제 3 편 교회 확립기

### 제 1 장 서성오목사 목회

- 제1절 교회의 내실 확립 ..... /182
- 제2절 당회의 조직 ..... /183
- 제3절 3. 1운동과 경산 및 경산교회 ..... /193

### 제 2 장 염봉남목사 목회와 세분목사의 단기목회

- 제1절 경산교회 첫 위임목사 ..... /196
- 제2절 염봉남목사 목회 ..... /197
- 제3절 세분목사의 단기목회 ..... /199

## 제 4 편 수난기

### 제 1 장 김용규목사 목회

- 제1절 김용규목사 이력을 통해본 시대상 ..... /204
- 제2절 김용규목사 목회 ..... /206
- 제3절 라이온동사 목회 ..... /210

### 제 2 장 한국교회와 일제탄압

- 제1절 신사참배와 교회의 시련 ..... /211
- 제2절 제4계명의 침범 ..... /216
- 제3절 일제의 교회탄압 ..... /216
- 제4절 새교단의 결성 ..... /222

### 제 3 장 수난기의 경산교회

# Contents

G Y E O N G - S A N P R E S B Y T E R I A N C H U R C H

제1절 운영문목사 목회 .....	/224
제2절 제직회 조직 .....	/236
제3절 양재엽목사 목회 .....	/243
제4절 이상업목사 목회 .....	/246
제5절 이명석목사 목회 .....	/248

## 제 5 편 교회 재건기

### 제 1 장 조국광복과 경산교회

제1절 광복의 감격 .....	/252
제2절 청년면려회 재건 .....	/254
제3절 사회와 교계의 혼란 .....	/257

### 제 2 장 오태환목사 목회와 화강석 예배당 신축

제1절 오태환목사 부임과 이력 .....	/258
제2절 일반목회 .....	/260
제3절 화강석 예배당 건축 .....	/268
제4절 6. 25와 경산교회 .....	/275

### 제 3 장 김삼대목사 목회

제1절 김삼대목사 부임과 교역자동정 .....	/278
제2절 김삼대목사 목회 .....	/281

## 제 6 편 교회의 발전기

### 제 1 장 최동진목사 목회와 교회발전

제1절 최동진목사 부임 .....	/288
제2절 최동진목사 목회와 교회발전 .....	/289
제3절 구역강화 및 복음반 운영 .....	/305
제4절 맺는말 .....	/312



# Contents

G Y E O N G - S A N P R E S B Y T E R I A N C H U R C H

## 제 2 장 시련속의 교회 성장

제1절 김형식목사 목회 .....	/313
제2절 권신찬목사 목회 .....	/318
제3절 경산중앙교회 및 경산제일교회의 분립 .....	/319
제4절 김찬명목사 목회 .....	/322
제5절 장로교 분열과 경산교회 .....	/325
제6절 김기식목사 목회 .....	/326

## 제 3 장 이만천목사 목회와 교회의 신장

제1절 이만천목사 부임 및 교역자 동정 .....	/337
제2절 이만천목사 목회 .....	/339
제3절 교회시설 및 부동산 확충 .....	/348
제4절 선교사역의 시작과 선교회 조직 .....	/351
제5절 맺는말 .....	/354

## 제 4 장 이기봉목사 목회와 교회의 안정

제1절 이기봉목사 부임과 교역자 동정 .....	/355
제2절 이기봉목사 목회 .....	/357
제3절 맺는말 .....	/374

## 제 7 편 교회의 전환기

### 제 1 장 박세봉목사 목회와 교회의 전환

제1절 박세봉목사 부임과 교역자동정 .....	/377
제2절 박세봉목사 목회 .....	/385
제3절 특별전도사역과 태신자 전도 .....	/414
제4절 새예배당 건축 .....	/423
제5절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	/432
제6절 맺는말 .....	/452

부 록 .....	/455
-----------	------